

용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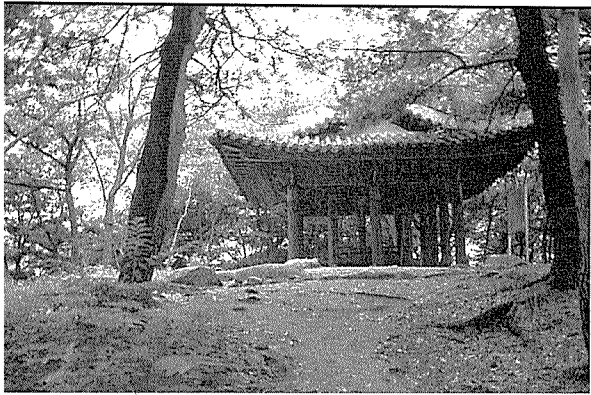
삼상한 가을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 독산성 - 세마대 - 용건릉 - 용주사를 찾아서

글·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경 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을 빠져나와 수원 쪽으로 내쳐 달린다. 세마대(洗馬臺)로 가는 길. 계절이 바뀐 9월, 길가에는 채송화며 코스모스가 한들거린다. 계절의 순환은 이렇듯 어김없다.

세마대 사거리에서 왼쪽 길로 접어든다. 세마대와 독산성을 알리는 이정표를 따라 좁은 산길을 오른다. 인적 없는 오붓한 산길 옆으로는 풍년을 약속하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오르막길을 얼마쯤 올랐을까. 산림욕장을 지나 암자(보적사)에 이르니 아득히 펼쳐진 오산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몸에 엉겨 붙은 땀을 씻어준다. 절집 특유의 고요함이 흐르는 암자 경내에서 잠시 마음의 때를 지운다. 아집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잠시나마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닌가.

두터운 독산성 성문이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는 보적사는 서기 401년 백제 아행왕이 전쟁 승리를 빌며 세웠다고 전한다. 가람을 둘러싼 성곽은 그 옛날 삼국전쟁을 그려보게 한다. 임진왜란이 한참이던 선조 26년, 권율 장군은 이곳 독산성에서 노략질을 일삼는 수많은 왜적을 물리쳤다. 한양으로 접근한 기요마사 부대를 상대로, 독산성의 지세를 최대한 활용,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독산성은 사방이 바위로 이루어진 벼랑이었고,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험한 산세로, 적이



세마대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적은 산성 밑에서 권을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에게 큰 봉변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싸움이 난관에 처하자 순간 묘안이 떠오른 왜장 가토는 “저 산성의 지세는 사방이 바위 뿐이다. 분명히 물이 없을 것이다. 군사를 뒤로 물리고 조선군의 물과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며칠만 포위하고 있으면 저절로 투항할 것이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가토의 예상대로 조선군은 목이 말라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을 장군은 “걱정할 것 없다. 왜적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말과 쌀을 내와라.”라고 명령했다. 그런 다음 준비해온 말을 매어놓고 말 등에 쌀을 끼얹게 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말에게 목욕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물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위함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토는 “아, 내 착오였다. 물이 이렇게 많다면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즉시 퇴각하라.”며 작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독산성은 둘레가 3.6km로 걸어서 50분이면 한바퀴를 돌아볼 수 있다. 성곽을 따라 난 오솔길 양편으로 짙푸른 녹음이 무성하다. 여기저기 피어난 야생화와 갖가지 수목들은 태초의 자연 그대로다. 곳곳에 놓여 있는 벤치에 앉아 풀벌레 소리, 새 소리를 듣다 보면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

성 중앙에는 쌀로 말을 씻겼다 해서 이름 붙은 세마대(洗馬臺)가 서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누각으로 일제 치하 일본인들이 파괴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 중건했다고 한다. 흘림체인 ‘세마대’란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다. 누각이 서 있는 산봉우리(해발 208미터)는 밋밋한 평원으로 전나무, 떡갈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하늘을 가린 나무 그늘 아래, 돛자리를 깔고 누우면 신선이 따로 없다. 나무들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는 오산 평야와 오밀조밀 들어선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왔던 길을 되짚어 5분 정도 내려가면 산림욕장이 있다. 잣나무 숲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향기를 온몸으로 맡으며 산책로를 거니노라면 몸과 마음이 즐겁다. 각종 운동기구가 갖춰진 체력단련장은 이곳만의 자랑거리. 세마대가 있는 독산성은 하이킹 코스로도 제격이다. 독산성이 뻗아 내려다 보이는 길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산길을 오르면 체력 단련은 물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듯.

독산성에서 나와 큰 도로에서 우회전, 수원 쪽으로 간다. 용주사(龍珠寺)와 용건릉(隆健陵)으로 가는 길이다. 알알이 여물어 가는 들판의 곡식과 파란 하늘,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잠자리떼가 그렇게 정겨울 수 없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인 것이다.



독산성

계절이 바뀐 9월,
길가에는 채송화며 코스모스가 한들거린다.
계절의 순환은 이렇듯 어김없다.

행정구역상으로 화성시 태안읍에 속해 있는 용-건릉은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조용한 분위기가 썩 괜찮다. 소나무, 상수리나무가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가면 건릉과 용릉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용릉은 조선조 정조(正祖)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그의 비인 헌경왕후(1735-1815) 홍씨의 능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1753-1821) 김씨의 능이다. 합장릉인 용릉은 동. 서. 북 3면에 곡장(曲牆)을 두르고, 봉분은 모란과 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으로 둘러싸고 있다. 방위 표시를 위해 병풍석 위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引石)에 문자를 새겨 넣었다. 봉분 바깥에는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을 각각 2기씩 배치, 봉분을 호위하고 있다. 건릉은 대체로 용릉의 예를 많이 따랐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동. 서. 북 3면에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난간석 바깥으로 석호와 석양을 각각 4기씩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

용건릉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남아 있는 용주사가 있다. 경내로 들어서면 수 백년을 꽃꽂하게 지켜온 은행나무와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등이 그 기개를 뽐내는데, 가을 깊은 10월쯤이면 노랑과 붉은 단풍이 볼 만하다. 용주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웅전에 그려진 단원 김홍도의 탕화다. 대웅전 오른쪽에는 정조가 부모님의 은혜 열 가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쓴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이 새겨진 석탑이 있다. 여기에 국보로 지정된 고려시대 범종과 정조가 기념 식수한 회양목(천연기념물 제10호)을 둘러보면 이 절의 내력이 얼추 마음에 와 닿는다.

다시 찾아온 가을, 역사 탐방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보면 어떨까.

여행메모 (지역번호 031) = 경부고속도로 오산 나들목을 빠져나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1번 국도 수원방면으로 4km 정도 달리면 오른쪽으로 '초전비 휴게소'를 지나 곧바로 세마대 사거리 나온다. 사거리에 독산성과 세마대를 알리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좌회전해 2km쯤 가면 오른쪽으로 독산성 올라가는 산길(시멘트 포장길)이 나 있다. 산림욕장을 지나 보적사 앞마당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주차장이 협소함. 독산성에서 나와 큰 도로가 나오면 우회전, 다시 삼거리가 나오면 수원 방면 좌회전. 용건릉 이정표가 보임. 수원 남문(팔달문)과 수원역 앞에서 용주사(용건릉)행 버스(46번, 46-1번, 24번, 24-1번)가 수시로 있다. 용건릉 관리사무소(222-0142).

맛있는 집 세마대 사거리에서 독산성 가는 길 양편으로 근사한 음식점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다. 뿌리깊은나무(콩나물비빔밥, 김치 덮밥 등 식서류와 다양한 전통차. 원목으로 꾸민 실내 분위기가 만점, 372-5161), 정호기든(타조요리집, 농장에서 사육한 타조를 직접 요리해 준다. 사브사브, 육회 등이 있다, 372-3551), 풀향기(전통음식과 차, 372-5999), 오솔가든(수원갈비와 냉면맛이 일품, 372-3101) 등. 용건릉 주변에 보리밥집, 순두부집, 고기집, 찻집이 많다.

잠 자 리 오산시내에 영동장(372-7997), 마로니파크(372-4400), 니베라파크(372-3930) 등이 있다.